

# 1인당 개인소득 전남은 전국 꼴찌 광주는 광역시중 최저

<1594만원>

<1734만원>

전남 5년째 최하위...서울과 500만원 차 지역 총생산 증가율도 전국 최하위권 1인당 소비 광주 1612·전남 1411만원

지난해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였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공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143만원)이었다.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전남의 작년 1인당 개인소득은 1594만원으로 서울과 무려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통계청이 자료를 공개한 2013년 이후 줄곧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3년엔 1349만원, 2014년 1383만원, 2015년 1470만원, 2016년 149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의 작년 1인당 개인소득은 1734만원으로 전남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소득인 1845만원보다 100만원이 적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개인소득(실질) 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6.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4%, 강원이 4.7%로 뒤를 이었다. 울산이 0.0%로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1.4%), 서울(1.7%) 순이었다.

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732조원으로 전년보다 85조원(5.2%) 늘었다. 지역총소득은 경기가 43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7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9조6000억원, 전남은 59조원이었다. 제주가 19조원으로 가장 작았다.

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732조원으로 전년보다 90조원(5.5%)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14조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372조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18조원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은 경기(11.0%), 충북(8.2%), 충남(6.3%)이 높았고 경남(0.9%), 대구(2.1%), 부산(2.5%)은 낮았다.

시도 전체의 명목 최종소비지출은 1099조원으로 전년보다 50조원(4.7%) 증가했으며 실질 최종소비지출은 2.8% 늘었다.

실질 민간소비는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으며 전국 평균 2.6% 증가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은 3366만원 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울산(6441만원), 가장 낮은 곳은 대구(2060만원)였다. 광주는 2357만원, 전남은 3967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평균 162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2021만원), 가장 낮은 곳은 충남(1405만원)이었다. 광주는 1612만원, 전남은 1411만원이었다.

16개 시도 전체의 설비투자(실질)는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충남(46.1%), 충북(23.4%), 경남(21.1%)에서 큰 폭으로 늘었고 전남(-1.9%), 부산(-0.5%), 인천(0.1%)에서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미미했다.

16개 시도 전체의 건설투자(실질)는 2016년보다 6.1% 증가했다.

울산(26.7%), 경기(14.3%), 제주(13.9%)는 대폭 늘고 대구(-14.7%), 광주(-6.0%), 전남(-3.4%)은 줄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전 '어서와 봄'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막한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 전 어서와 봄'을 찾아 조운진 작가가 박스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올해의 인물'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김태우 수사관 폭로 조목조목 반박 조국 수석 정면돌파 의지 밝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제기된 의혹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는 등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일부에서 '과잉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각종 의혹이 마치 사찰처럼 받아들여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김 수사관이 최근 한 매체와 통화에서 "현

역 A 장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일일보고서에서 써서 보고했다"며 이 일이 자신이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일일보고는 그야말로 근태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며 거기 적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이같은 글귀를 다시 인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조 수석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1인당 진료비는 전국평균보다 많아

각각 168만원·210만원...60세 이상 진료비 47%·61%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1인당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 지역 보건·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 1인당 진료비는 168만원, 전남은 210만원이었다. 두 곳 모두 전국 평균인 158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전국평균보다 무려 33%나 많았다. 고령이 28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270만원), 영광(267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광양(142만원)이었다.

1인당 본인 부담금은 광주 38만원, 전남 46만원으로 전국 평균(36만원)보다 역시 많았다.

주요 4종 암 질환(위암·대장암·간암·폐암) 진료 인원은 광주는 위암이 4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3548명), 폐암(2488명), 간암(1927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간암 859만원, 폐암 820만원, 대장암 635만원, 위암 394만원이었다. 전남 진료 인원은 위암(7647명), 대장암(6174명), 폐암(5192명), 간암(4863명) 순

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폐암이 7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 730만원, 대장암 590만원, 위암 350만원이었다.

4종 만성질환(치주질환·관절염·당뇨·고혈압) 진료 인원은 광주는 치주질환(60만명), 관절염(16만명), 고혈압(14만명), 당뇨(7만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당뇨 85만원, 고혈압 56만원, 관절염 42만원, 치주질환 19만원이었다.

전남도 치주질환이 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절염(35만명), 고혈압(28만명), 당뇨(14만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당뇨 85만원, 고혈압 53만원, 관절염 46만원, 치주질환 22만명이었다.

광주 요양병원은 61개로 10년 전인 2007년 16개에 비해 45개(281.3%) 늘었고, 전남은 53개(189.3%) 증가해 81개였다.

광주 전체 진료비는 2조3402억원, 전남 3조8405억원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진료비가 광주 47%, 전남 61.2%를 차지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문대통령 지지율 집권 20개월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 앞질러

갤럽 여론조사...호남 '부정' 10% 늘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취임 후 처음 발생한 가운데 호남 지역의 부정평가도 점차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 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긍정 평가는 45% 그리고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47% 이하 긍정·부정)과 호남(65%·28%)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의 경우,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치 이면에는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난주 18%이던 부정 평가 비율이 28%로 10% 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장, 호남 민심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은 결집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29%·58%), 부산·울산·경남(42%·48%), 인천·경기(46%·47%), 충청(37%·44%)에선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36%·56%)와 60대(32%·57%)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20대(53%·35%), 30대(63%·30%), 40대(50%·44%)에선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며 40% 아래로 유지되던 부정 평가 비율이 상승한 데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불

만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데드크로스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재역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다시 골든크로스(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를 기록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전체적 흐름을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일이 지난해 5월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데드크로스 상황을 맞은 것은 집권 20개월 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7개월째 데드크로스가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 2분기 때 광우병 사태로 데드크로스를 맞았지만 2년차 4분기 때 골든크로스로 반전했다. 그러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광주첨단점 062)974-3050

## 국내 출발 최대 5억! 급이 다른 1만톤급 세레나호

#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기업
- ▶ 국내 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영
- ▶ 2017 아시아 크루즈 어워드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상' 최초 수상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 → 인천(4월 26일) / 광주 → 속초(5월 2일, 6일)

• 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2018 인기크루즈 BEST 3

**베스트셀러 / 싱가포르 출항 동남아 크루즈 6월 7일**

1,870,000원부터 [+US\$118 선택관광 있음]

▶ 1/13 ~ 매주 일요일 출항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푸켓/싱가포르

• 90일전 예약시 1인 10만원 할인, 동남아시아 No.1 크루즈 일정

• 14만 톤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탑승

**전세선 10주년 조기예약 이벤트**

**선실우선배정 + 최대 25만원 할인**

12월 28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예약 추가할인**

8명이상 3만원, 14명이상 5만원, 20명이상 10만원 할인

3/4인실 이용 시 2번째 고객까지만 단체인원 포함

**3/4인실 파격가**

성인 80만원 소아 30만원!

3/4인실 이용시 3번째, 4번째 고객 상용가

**4월 26일 인천항 출발**

인천항 · 상해 · 후쿠오카 · 부산항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부산항 ·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카이마나토 · 속초항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6일 속초항 출발**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오타루 · 아이오리 · 부산항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가이드/가이드비** [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출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 ● 여행자의 ● 여행자재 ● 필수신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적경비(관공) 있음/입출 상용에 따라 선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경비는 선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적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적관광 미 선적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권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 종료일: 일반여행업 제47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0 롯데관광개발주) ●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 기해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억원 가입 ● 여행관리센터: 1588-8882 ● 여행유지: 부산항/속초항 ● 최소승원 10명 ● 크루즈 2인 1실 사원/민박실 제외 ●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열차, 입원, 숙박 등 다른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